

천년의 탑 사진 '화엄'의 꽃을 피우다

허경순 사진전 '법계' ...2월 18일~23일 대구문화예술회관서



“해발 천 미터의 깎아지른 절벽을 딛고 삼층석탑이 솟아 있다. 아니, 하늘을 받치고 있다. 법화경의 ‘견보탑품(見寶塔品)’이 눈앞에 펼쳐진다. 해와 달이 보람을 가로지르고, 밤낮없이 별들이 무수히 맴돌아 간다. 등대! 삼층석탑은 은해(銀海)의 등대다. 별들은 대연사 삼층석탑에 의지하여 은빛 바다를 찬란히 항해한다. 보람 등대는 그렇게 천 년을 서 있었고, 또 그렇게 역 곁을 서 있을 것이다. 법계(法界), 그 천 년의 흔적! 우주 전체가 화엄(華嚴)의 꽃 한 송이요 부처의 자리이니, 윤회 중생의 아름다운 법계(法界)이여.”

— 허경순 작가 노트 중에서

자연을 머금은 대구 달성군 비슬산 대견사지 3층 석탑의 찰나 찰나가 25점의 흑백

사진에 담겼다. 허경순 작가(사진)의 사진전 '법계(法界)—그 천 년의 흔적'이 2월 23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제5전시실)에서 열린다.

허 작가는 법화경 기도중에 만난 대견사지 3층 석탑을 보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 바로 <법화경> 견보탑품에서 보았던 그 탑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해발 1000m 위 대견사지를 찾았을 때 거친 비바람과 천년의 세월을 이겨낸 석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탑은 우주를 한 몸 안에 안고 있었죠. 4년째 하안거 때마다 법화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탑을 보는 순간 법화경의 ‘견보탑품’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작가는 탑과 그 주변의 자연에서 우주를 발견했다. 우주 삼라만상이 담겨 있는 부처님의 세계를 만난 것이다. 그래서 탑 위로 달과 별의 섬광이 지나가기도 하고, 아침 일출의 장엄함이 표현되기도 한다. 어떤 한 낮 무성한 잡초 속 탑은 법화경의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한다.

“이 장면은 과거불 다보여래가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 나타난 모습을 연상케 해요. 다보여래는 설법을 증명하기 위해 탑을 공중으로 띄우니 중생들도 탑을 보고 싶었다 하여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 올려주죠. 탑 앞의 풀들은 중생들을 의미합니다.”

허 씨는 작업을 위해 2012년 9월부터 70

여 차례 대견사지 3층 석탑을 찾았다.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비 오고 눈 오는 기후의 변화에도 아랑곳없었다. 힘들지 않았다. 별이 쏟아지는 밤에는 환희심마저 일었다. 그에게 탑은 그냥 탑이 아니었다. 해와 달, 별, 구름, 운무를 천년 동안 바라보고 세월을 견뎌 온 하나의 우주였고 찰나 속 생명을 이야기하는 진리 그 자체였다. 그리고 이 촬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아침 행하는 다라니 기도와 하안거 법화경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

법화경 기도하며 만난 비슬산 대견사지 3층 석탑 25점 흑백 사진에 담아



허경순 작가는 견보탑품에 나오는 다보여래 설화를 연상하며 대견사지 3층 석탑 사진을 촬영했다. 탑 아래 풀들은 중생을 의미한다.

“하루에 한 컷 밖에 못 찍을 때도 많았어요. 자연의 변화에 따라 그 각도를 달리해 사물을 포착하려고 하니 쉬운 일은 아니었죠. 길도 험해서 오르내리기 쉽지 않았는데 70번은 올라 간 거 같아요. 탑 앞에서 기도를 자주 했어요. 어떤 날은 기도를 하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 뱀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놀라지 않았어요. 제가 해질 마음이 없으니 뱀도 저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죠. 그 모두가 기도의 힘이였죠.”

작업을 하는 동안 그녀는 너무 행복했다. 그저 탑이 좋아서 찾아 갔는데 그 맞은편이 절터였다는 사실도 또 이곳이 중창 불사로 복원이 된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저는 운이 너무 좋아요. 촬영 내내 작업을 도와주는 좋은 분들을 만났죠. 대견사 중창 불사가 이루어지니 제 작품과 관련한 전시 문의도 들어오고 있어요.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죠.”

그녀의 행보는 바쁘다. 3월 1일 대견사 중창 개산대제 이후 달성군청 전시와 초파일 동화사 전시 등이 계획 되어 있다. “중창 개산대제가 끝나면 절에서 머물고 기도하며 3층 석탑의 모습들을 더 많이 찍어내고 싶어요. 탑은 천년의 세월 동안 주변 노을과 별과 바람을 보며 살아 왔는데 제가 본 것은 찰나잖아요. 좀 더 오랫동안 머물며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 제 2 제 3의 법계를 만들어 내고 싶어요.” (053)606-6137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허경순 작가의 사진전 '법계(法界)'가 2월 23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탑과 그 자연의 변화를 흑백 사진 26점에 담았다. 사진은 달과 별의 섬광이 탑 위로 지나가는 밤 촬영 장면.

부산박물관 리모델링 동래관 개관

불교유물 등 900여 점 상설 전시

부산 박물관은 대표 유물 국보 200호 금동보살입상을 2월 28일까지 전시한다. 부산박물관은 6개월간의 전시관 리모델링을 공사를 끝내고 2014년 제1전시관은 동래관, 제2전시관은 부산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상설 전시관으로 관람객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에 부산박물관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국보 200호 금동보살입상을 이날 말까지만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부산박물관은 “부산 박물관의 대표 유물이지만 30년 넘게 전시돼 많이 마모된 상태라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개관 기념으로 한 달 정도만 전시를 하고 수장고에 보관한다”고 설명한다.

이밖에도 상설관에서는 석탑, 소조불두, 사리호 등 불교 유물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국보 233호 석남사지 납석제 사리호는 766년 제작된 유물로 다라니경을 넣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운대

에서 출토된 석탑 또한 주목할 만하다. 나 말여초 무렵의 석탑으로 해운대 호철 정원에 있던 것을 경주 박물관으로 옮겼다가 이번 동래관으로 옮겨 왔다. 마모가 극심하지만 목탑형식으로 만든 석탑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남구 용당동 소조불두는 이 자리가 사찰

국보 200호 금동보살 입상 28일까지 전시...수장고로

이 있었음을 짐작케한다. 부산박물관은 “용당동은 신라시대부터 남해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지며 고려시대 형변 부곡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흙으로 만든 불두와 각종 기와, 고급 상감 청자 등이 출토되어 사찰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다.

동래관의 전시 유물은 구석기, 신석기



국보 200호 금동보살입상

시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동래 주변 유적에서 출토한 것이다. 부산 박물관은 “동래라고 하는 명칭이 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 사용 돼 조선 시대까지 부산의 중심이 됐기에 동래관이라 정했다. 이번 동래관 개관으로 지난 10년간 부산지역에서 축적 발굴 조사된 유물 총 900여 점이 선보이며, 이 중 약 80%는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된다. 30여점의 불교 유물도 전시된다”고 설명한다. (051)610-7111

정혜숙 기자

명상 만다라 만나 '힐링'으로

한국만다라연구협회 만다라 전시 22일까지 부산시청 제2전시실서

그림을 통해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만다라 전시회가 개최된다. 한국만다라연구협회는 2월 22일까지 부산시청 제2전시실에서 ‘치유와 휴식, 성찰전’을 주제로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동아대 평생교육원 ‘만다라미술심리지도자’ 과정을 마친 10명의 만다라연구협회 회원들이 참여한다. 회원들은 지난 1년간 자기 성찰 과정을 통해 완성해낸 ‘법륜’ ‘만월밤의 물고기’ ‘연꽃’ ‘선을 담다’ 등 만다라 작품 60여 점을 선보인다.

김유진 동아대 평생교육원 만다라미술심리지도자과정 지도교수는 “만다라 미술 작업은 휴식과 내면의 치유, 자신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가져다준다. 자기를 찾고 깨달음의 본질에 이르는 길이 곧 만다라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의 '법륜'

김 교수는 회원 모두가 수행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만다라는 일종의 명상과 같다. 위빠사나 등 체험적 수행도 공부하고 이론으로 만다라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1년 교육 과정을 작품으로 완성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국만다라연구협회는 앞으로 서양의 심리학과 동양의 명상이 만나 자기 치유에 이르는 길을 만다라를 통해 이끌어내고자 한다.

정혜숙 기자

국립경주박물관 강우방 교수 초청강연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2월 22일 오후 2시~4시 박물관 강당에서 강우방 원장(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을 초청 ‘국립경주박물관 특강’을 연다.

‘한·중·일 기와의 상징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강의는 한국·중국·일본 기와의 양식을 살펴보고 그 상징을 비교 분석해본다.

이번 강의는 세 나라가 기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형식과 양식, 상징을 함께 비교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강우방 원장은 1941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경주박물관 관장을 역임했으며 이화여자대학 대학원의 초빙교수로도 재직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불교의 사리장엄> <한국불교 조각의 흐름> <수월관음의 탄생>과 다수의 연구논문이 있다. (054)740-7536 정혜숙 기자

불교의식(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 인재양성을 위해 '제1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과정

- 상용의식 및 재의식 전반(시련~봉송)
- 바라무, 착복무, 법고무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북) 다루는 법

• 교육기간 : 1년과정 • 대상 : 초심자, 전법사, 포교사
 • 개강일 : 2014년 3월 5일(수요일)
 • 강의시간 : 매주(수/목), 오후 4시~5시30분
 • 문의 : 031)907-1062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50-76, 503호 (풍동 중앙프라자B동) 청유사

한국불교 태고종 청유사 (사)고양 범패문화 예술원

진로·적성·상담 안내

인재 양성

-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 상담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흥연 (010-7925-4749)

C.A.C 분석사

◇ 프로필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 동방대문대학교원 수업 [목] (오후 2시 ~ 5시)
-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 저서 : 규명 (1, 2, 3권 : 한숨미디어) 실천성명학 -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